

중학생의 용돈실태에 따른 저축행태

공 은 희(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팀장)

성 영 애(인천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중학생의 저축실태는 어떠한지, 용돈실태에 따른 중학생의 저축실태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득을 비축하여 두는 재무관리행동의 하나로서 개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과 용돈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용돈실태에 따른 저축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용돈관리방법이나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저축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저축실태는 저축여부, 저축목적, 저축시작시기, 저축액 및 총저축액, 저축주체, 저축방법, 저축수단, 저축을 안 하는 이유, 예상저축시기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개인적 특성, 부모 및 가계 특성을 포함하였다. 개인적 특성 변수는 중학교 2학년으로 학년과 거주지를 통제하여 조사 하였기에 성별만을 분석하였으며, 부모 및 가계 특성 변수로는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가계경제수준, 가족수를 포함하였다. 용돈실태는 용돈여부, 용돈액, 용돈조달방법, 용돈수령방법, 추가용돈관리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3월 인천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277부의 응답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및 용돈실태에 따른 저축실태의 분석을 위해서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저축여부, 총저축액, 저축시작시기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월평균저축액, 저축목적, 저축주체, 저축방법, 저축수단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저축여부는 어머니 학력과 가족수에 따라, 총저축액의 경우는 성별과 월평균 가계소득에 따라, 저축시작시기는 어머니 연령과 가족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수가 많을수록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일수록,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총저축액수가 많았으며,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저축을 초등학교 이전에 시작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학생이나 가계소득이 낮은 가계의 자녀에 대한 저축장려정책이 더 필요하며, 저축을 일찍 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가족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돈실태에 따른 저축실태를 살펴보면 저축여부, 저축시작시기, 저축주체, 저축수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축여부는 용돈유무 및 수령방법에 따라, 저축시작시기는 용돈조달방법에 따라, 저축주체는 용돈유무와 용돈수령방법에 따라, 저축수단은 용돈수령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용돈을 받고 있고, 월 1회 받는 학생 일수록 부모보다는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저축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용돈을 부모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학생이 저축을 일찍 시작한 경우가 많았으며, 용돈을 필요할 때마다 받는 학생은 저축수단으로 저금통을 이용하고 월 1회 이상 받는 집단 일수록 은행 예·적금 및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고 부모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자녀가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저축행태를 보여주어 부모에 대한 자녀용돈지도가 저축행태의 장려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